

배움의 주체성 문제

박 동섭(littleegan@gmail.com)

배운다는 것은 창조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창조적이라는 것은 똑같은 선생으로부터 똑같은 것을 배우는 학생은 두 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배우는 이유는 만인을 위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이 세계에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다른 것과 교환 할 수 없는)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배웁니다.

우리들이 선생님을 경애하는 것은 선생님이 나의 ‘유일무이성(唯一無二性)’의 보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선생으로부터 ‘똑같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통찰 풍부한 지견이라고 하더라도 배운 것의 유일무이성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도 다른 누군가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선생님으로부터 결코 똑같은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릇에 맞추어서 각각 다른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배움의 창조성, 배움의 주체성입니다.

“이 선생님의 이 훌륭한 점을 알고 있는 것은 많고 많은 제자 중에서 나 혼자다”라는 믿음이 제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오해’라는 말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연애에서 연인들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전하는 말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나 밖에 없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선생님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나 밖에 없다.

그런데 “당신의 진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나 밖에 없다”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가’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매우 ‘이해받기 어려운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즉 당신은 누구나 인정하는 미인 혹은 누구에게나 경애 받는 인격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 사랑의 고백도 은사에 대한 감사의 말도 그 어느 쪽도 “당신의 진가는(나 이외의)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세상’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전제

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없으면 실은 연애도 사제관계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신(나)이 없으면 당신의 진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진다.” 라는 전제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다음의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로직(논리)에 의해서 우리들은 자신의 존재를 근거 짓는 것입니다(존재 의미를 규정 짓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배운다’는 것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특정한 정보와 기술의 습득을 사회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먹고 살수 없기 때문이라든지 그러한 냉엄한(severe)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만으로 학교와 교육기관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선생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자신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배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따든지, 이러이러한 검정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면허증을 손에 넣는다든지. 그런데 그러한 것은 ‘배움’의 목적이 아닙니다. ‘배움’에 수반되는 부차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 그러한 장에서는 결코 선생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모두와 똑같이 되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 선생님은 불필요하기는 고사하고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나 밖에 할 수 없는 일, 나 이외의 누구에 의해서도 대체할 수 없는 책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라고 생각한 사람 앞에만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의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이 사람의 진짜 깊이를 알고 있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까? 라는 행복한 오해가 성립하다면 어떤 형태의 정보전달도 사제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책과 같은 것을 경유한 사제관계라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TV화면을 보고 ‘이 사람을 선생님이라 부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컨대 그 쪽이 나를 알고 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내가 ‘이 사람의 진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 뿐이다’라는 믿음만 있으면 이미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배움’은 기동합니다.

‘배움의 주체성’이라는 말을 나는 지금 사용했습니다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학생이 커리큘럼을 결정한다든지, 학생들의 인기투표로 교장을 뽑는다든지, 수업 중 출입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마(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학생자신을 교육의 주체로 한다는 것은 그러한 제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움의 주체성’이라는 주제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 자신은 배울 수 있는 것 밖에 배울 수 없다. 배우는 것을 욕망하는 것 밖에 배울 수 없다는 자명의 사실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아무리 고상한 학설을 설파하더라도 학생이 줄고 있어서는 ‘배운다’는 행위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고등학생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어로 철학을 말해도 그것이야 말로 ‘It's Greek to Me’입니다.

배움은 두 사람의 참가자가 필요합니다. 송신하는 자와 수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수신자’입니다.

선생님이 발신하는 메시지를 제자가 ‘가르침’이라고 믿고 수신할 때 배움은 성립합니다. ‘배움’으로서 수신된다고 하면 극단적인 이야기로 그 메시지는 ‘하품’과 ‘딸꾹질’이라도 관계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제자는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도록 해보죠.

이전에 ‘반면(反面)교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있었던 시기의 용어입니다(여러분 모르시죠. 문화혁명 같은 것.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일단 말해두기로 하죠.)

‘반면교사’라는 것은 ‘시시한-쓸모없는 선생님’(당시의 문맥에서는 자본주의의 해독(害毒)을 그대로 갖고 있는 반혁명적 선생’을 뜻합니다.)인데도 선생님은 혁명적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점에서 아주 획기적인 표어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방법이 있었던가”라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감동하였습니다.

교사가 시시하고 쓸모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왜 이 교사는 이렇게 쓸데없는 인간이 되어 버렸을까?”, “이 교사의 어떠한 언동이 ‘시시한 사람’이라는 판단으로 나를 이끄는 것일까?” “이러한 인간이 되기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와 같은 일련의 교육적인 물음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반면교사’라는 아이디어는 학생에게도 교육의 현장에서 승부의 판세를 컨트롤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눈뜨게 해준 점에서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반면교사’론은 교육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권한은 학생 측에 있다는 생각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배운 내용을 각각 고유의 기준에 따라서 해석할 자유는 있다는 생각이 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반면교사’론은 학생의 ‘배움의 주체성’을 키우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학생 측에 교사의 됬됨이(좋은 교사인지 나쁜 교사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이 교사는 모택동 주석의 정치방침에 찬성인지 반대인지”와 같은 단 한 가지 공통된 척도밖에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석’이 아니라 ‘검열’입니다. ‘사정(査定)’과 ‘검열’은 학생들에게 ‘유일한 정답’을 습득시키기 위한 타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무수한 오해로 열리는 것을 통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유일무이성의 초석을 다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교사’론은 학생 측에 교육내용의 ‘해석권’이 있다는 것을 사유시켜줬다는 점에서 자그마한 공헌을 했습니다만 ‘해석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배움의 주

체성'을 손상시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배울 수 있는 것 밖에 배울 수 없다”. 저는 앞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이 선생님께서로부터 이것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은 “내가 배웠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선생님 측은 “그런 것을 가르칠 마음이 전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육이라는 것은 애당초 그런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단의 저 편에서부터 말을 걸어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때 학생들이 듣고 있는 것은 실은 전원이 다른 말입니다. 말은 똑같습니다만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력의 차이와 이해력의 차이로 인해 듣고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자고 있는 학생과 눈을 뜨고 있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듣는 내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 학생은 일본 근대사 수업을 마음 편안하게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사는 똑같은 것을 말하고 똑같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생각해도 한 명 한 명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학생들이 한 명의 교사로부터 똑같은 교육정보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학생은 자신이 배울 수 있는 것, 배우고 싶다고 바라는 것 밖에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우는 측의 주체성’이라는 생각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움의 주체성’은 학생 측의 해석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한계에 의해서 끊임 없이 위협받게 됩니다.